

2004. 1. 26, No.93

□ Trade Focus

- Focus 1 : 중국의 경기과열 논쟁과 2004 중국경제 전망 /1
- Focus 2 : 빅맥지수에 의한 환율 평가와 시사점 /5
- Focus 3 : NAFTA 10년의 평가 /7

□ 동북아/FTA News

- 중국 무역, 가공무역이 선도 /10
- 일본, 2004년도 실질성장률 1.8% 목표 설정 /10
- 미국의 FTA 추진 동향 /11



KITA

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

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 4701호

Tel: 6000-5174 ~ 7 Fax: 6000-5170

홈페이지 : <http://tri.kita.net>

Focus 1

중국의 경기과열 논쟁과 2004 중국경제 전망

- 2003년 중국경제가 9.1%의 고성장을 달성하는 가운데, 통화량 (M2) 증가율이 20%에 달하고, 투자도 30%에 달하는 증가율을 유지하면서 경기과열 주장이 제기됨
- 중국의 대표적인 Think-tank인 국무원발전연구중심의 우징롄(吳敬璉) 박사는 과도한 통화증발로 경기버블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
 - 국민경제연구소의 관강(樊綱) 소장은 경제 부문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며, 인플레이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
- 이에 대해 최근의 경제성장은 지난 7~8년간의 성장을 둔화에 대한 반동이며, 통화공급을 억제할 경우 디플레이션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상반된 주장도 제기됨

<주요 학자 및 기관의 중국경기 평가>

| | |
|-------|--|
| 과열 주장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과도한 통화증발로 인한 버블경제 형성(吳敬璉, 국무원발전연구중심) - 과도한 투자로 경제부문간 불균형 초래(樊綱, 국민경제제도연구소 소장) - 동부 지역의 부동산 과열 (汲鳳翔, 통계국 투자사) - 부동산, 철강, 자동차, 방직업, 시멘트, 석유산업의 실질 투자증가율이 90년대 초반 과열시점의 증가율 상회(투자연구소) - 투자가 공급과잉을 초래하는 비전형적 과열 (張曙光, 천측경제연구소) |
| 반대 주장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과거 성장을 둔화에 대한 반동 (張立群, 국무원발전연구중심) - 중국 경제의 성장국면 진입 과정 (사회과학원) - 디플레이션은 해소되었으나, 인플레이션은 없음 (국가통계국) |

□ 90년대 중반의 전면적 과열과 달리 투자와 통화 등 일부 지표에서 과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

- 소비가 회복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되나, 물가 수준이 이전의 과열시점과 비교하여 매우 낮은 수준 유지
- 향후 중국이 개혁을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잠재적인 불안요소를 해소해 나간다면 경제의 軟着陸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

□ 투자과열 주장

- 2003년 제조업과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과열되면서 중국의 공급과잉 구조가 악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
 - 투자 증가율 : (2002년) 17.4% → (2003.1~11월) 29.6%
 - 업종별 증가율 (2003.1~11월) : 철강(104.1%), 화학(70.3%), 기계(65.8%), 방직공업(74.5%)
- 중국의 소비와 세계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 증대로 공급과잉 압력 해소가 가능하다는 반대 주장 제기
 - 승용차 판매 증가율 : (2002년) 56.0% → (2003.1~11월) 70.0%
 - 주택판매 증가율 : (2002년) 19.6% → (2003.1~10월) 33.4%
- 중국인민은행의 지불준비율 상향조정(6%→7%, 2003.8)이후 투자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으며, 정부가 기업의 투자 확대에 대한 규제수단을 보유하고 있어 과도한 투자증가는 없을 것으로 전망
 - 중국인민은행이 지불준비율을 상향 조정한(6%에서 7%, 2003년 9월)후 대출증가율 둔화

□ 통화과열 주장

- 2003년 총통화(M2)가 20%에 달하는 증가율을 시현하는 등 유동성이 지나치게 증가하고 있으며, 이로 인한 비효율적인 투자로 중국 경기가 과열되고 있다고 주장
 - 총통화(M2) 증가율 : (2002년) 19.9% → (2003년) 19.6%
 - 은행의 대출잔액 증가율 : (2002년) 16.9% → (2003년) 21.4%
 - 국내신용/GDP 비중 : (2002년) 161% → (2003년 추정) 174%
- 중국의 경우 화폐유통속도가 매년 7~8%씩 하락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, 통화증발에 따른 물가 상승압력 요인은 그다지 크지 않음.
 - 중국의 화폐유통속도 : (90년) 1.2 → (2000) 0.7 → (2003) 0.5
 -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, 사회복지제도 개혁 등에 따른 중국인의 높은 저축성향 등으로 화폐유통속도가 하락 추세임.

□ 인플레이션의 제기

- 생산물자 가격이 폭등하면서 2003년초이후 소비자물가도 상승세로 전환되고 있어 금리인상 등 인플레이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 제기
 - 소비자물가 상승률 : (2002년) -0.8% → (2003.1~11) 0.9%
 - 공산품 출하가격 상승률 : (2002년) -1.3% → (2003.1~11) 2.3%
- 현재 물가상승률이 매우 낮은 수준이고, 대부분의 업종에서 공급과잉구조가 지속되고 있어 오히려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됨
 - 물가상승이 선진국의 위안화 평가절상 압력을 완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

□ 2004년 중국경제 연착륙(8.4% 성장) 전망

- V자형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국내소비가 2004년에는 두자리수 증가율을 유지하면서 2004년 중국경제 성장을 주도
- 경기과열을 우려하는 중국정부의 부분적인 긴축정책으로 2004년 투자 증가율 둔화 불가피
- 2004년 중국 교역액 1조 달러로 일본을 제치고 세계 3위 부상 전망
 - 중국 교역액 : (2003) 8,512억 달러 → (2004) 1조 560억 달러
 - 세계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, 수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률 인하, 미국의 대중 통상압력 확대 등으로 수출 증가율은 둔화
- 환율 안정세가 유지되는 가운데, 외국인투자 700억 달러 초과 전망
 - 외국인투자 : (2002년) 527억\$ (-1.3%) → 535억\$ (+1.4%)
- 위안화 절상압력, SARS 재발 가능성 등이 리스크요인으로 작용

< 2004년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전망 >

(억달러, %)

| | 2001 | 2002 | 2003(추정) | 2004(전망) | |
|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GDP성장률 | 7.3 | 8.0 | 9.1 | 8.4 | |
| 광공업생산(부가가치) | 9.9 | 12.8 | 16.9 | 15.0 | |
| 소비자물가 | 0.7 | -0.8 | 1.1 | 2.0 | |
| 고정자산투자(국유,기타) | 13.7 | 17.4 | 29.5 | 16.5 | |
| 소비재소매총액 | 10.1 | 8.8 | 9.0 | 11.5 | |
| 수출입 | 무역수지 | 225.5 | 303.4 | 250.0 | 205.0 |
| | 수출 | 2,661(6.8) | 3,256(22.4) | 4,384(34.6) | 5,385(22.8) |
| | 수입 | 2,436(8.2) | 2,952(21.2) | 4,128(39.9) | 5,180(25.5) |
| M2증가율 | 14.4 | 16.9 | 20.2 | 18.5 | |
| 환율 (위안/달러) | 8.277 | 8.277 | 8.277 | 8.277 |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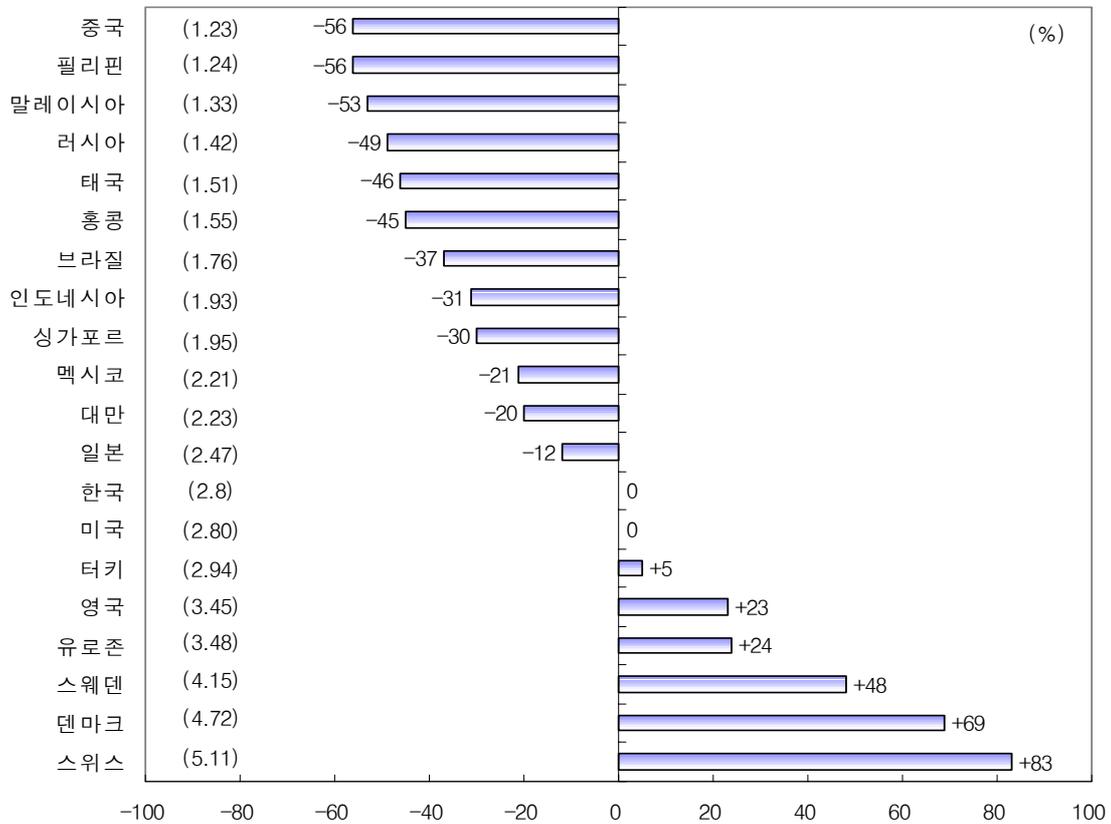
Focus 2

빅맥지수에 의한 환율 평가와 시사점*

- 2004년 빅맥지수에 의한 적정환율수준 평가에 따르면 위안화가 세계에서 가장 저평가된 반면 스위스 프랑이 가장 고평가됨
- 빅맥 지수에 의한 환율평가방식에 따르면 신흥시장의 통화는 대부분 저평가된 것으로 나타남
 - 빅맥지수와 같은 구매력 평가에 의한 환율은 임대료, 서비스 요금 등과 같은 비교역재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어 이들 가격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신흥시장의 경우 환율이 저평가된 것으로 나타남
 - 미국내 평균 빅맥가격이 2.8달러인 가운데 중국은 1.2달러, 스위스는 5.1달러임
 - 빅맥지수로 환산한 중국의 달러대비 적정환율은 3.64위안인 반면 현재 환율은 8.28위안임
 - 우리나라에서의 빅맥가격은 2.8달러로 원화환율은 달러화에 대해 적정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 - 신흥시장의 경우 대부분 달러화에 대해 30~50% 정도 과소평가되어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원화는 기타 신흥시장 통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평가됨

* 빅맥지수란 1986년 이코노미스트誌가 각국 환율의 적정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맥도날드의 빅맥 햄버거의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한 구매력 평가지수. 자세한 내용은 “빅맥지수에 의한 환율 평가와 시사점”(CEO Report/무역연구소 기획조사팀) 참고

< 주요국 통화의 달러대비 고평가율 >



주: 1) +는 고평가, -는 저평가 2) ()는 '04.1.14일자 시장환율을 적용한 각국의 달러표시 빅맥가격
자료: 이코노미스트(2004.1.14)

□ 빅맥지수에 의한 환율평가에 따르면, 한국의 경우 현재 환율수준보다 절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

— 우리와 경쟁하고 있는 신흥시장국 통화가 달러화에 대해 30~50% 정도 저평가 되어있어 해외시장에서 이들 국가와의 가격경쟁에서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.

○ 저평가율 : 중국(-56%), 말레이시아(-53%), 태국(-46%), 싱가포르(-31%), 대만(-21%)

— 특히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일본 엔화에 대해서도 원화가 상대적으로 12%나 고평가된 것으로 나타나 적절한 정책대응이 필요함

Focus 3

NAFTA 10년의 평가*

□ 1994년 1월 출범한 북미자유무역협정(NAFTA)에 대해 성공적이라는 평가가 많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의견도 적지 않음

— 이는 출범당시부터 3국간 이견으로 무역규제의 완전철폐에 합의하지 못한데다 많은 예외조항 등으로 논란이 지속되어 온데 기인

〈출범당시의 논란〉

| 반 대 론 자 | 응 호 론 자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· 무모한 경제통합으로 실업자 양산, 빈곤 악화, 환경 파괴를 주장 | · 일자리창출, 성장가속화로 소득증가 · 환경파괴 대신 신규자원 개발 가능 |

□ 반대론자들은 1994년 이후 멕시코의 경기침체, 미국의 제조업 고용감소 등의 예를 들며 NAFTA가 실패했다고 주장

— 정치적 측면에서 NAFTA는 3국에서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멕시코에서는 NAFTA의 무용론에 대한 인식이 팽배

○ 멕시코인의 29%만이 멕시코가 NAFTA의 이익을 얻었다고 응답했고, 33%는 멕시코에 피해를, 33%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응답(Ipsos-Reid 설문조사, 2002년말)

— NAFTA로 인한 고용창출 효과가 크지 않으며 오히려 일부산업에서는 고용감소가 나타남

○ 교역과 해외투자 촉진으로 일부 신규고용이 창출되었으나 일부산업에서는 고용이 감소하여 고용증가보다는 고용형태가 변화됨

○ 이러한 고용조정 과정이 회원국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시킬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필연적으로 수반하게 됨

* 무역연구소 기획조사팀에서 12월30일자 Economist誌 기사를 요약한 것임

□ 반면 찬성론자들은 지난 10년간 역내교역과 해외투자가 크게 증가하여 NAFTA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

— 역내교역의 경우 미국, 캐나다는 역내교역 증가율이 역외증가율을 상회하고 있으며 멕시코는 역내교역 증가율이 179%에 달함

〈역내 및 역외 교역 현황〉

(억달러, %)

| | 역내교역 | | 역외교역 | |
|-----|-------|-----|--------|-----|
| | 금액 | 증가율 | 금액 | 증가율 |
| 미 국 | 6,084 | 105 | 12,871 | 67 |
| 캐나다 | 3,847 | 80 | 1,118 | 39 |
| 멕시코 | 2,679 | 179 | 784 | 188 |

주 : 금액은 2002년 실적, 증가율은 '93~'02년중 증가율

— 역내투자의 경우 '94~'02년중 미국 대 멕시코 해외투자는 240% 증가하였으며 미국에 유입된 멕시코 외국인투자액도 275%증가

〈미국의 지역별 해외투자 및 외국인투자〉

(억달러, %)

| | 해외투자(出) | | 외국인투자(入) | |
|-----|---------|-----|----------|-----|
| | 금액 | 증가율 | 금액 | 증가율 |
| 캐나다 | 1,530 | 110 | 920 | 120 |
| 멕시코 | 580 | 240 | 80 | 275 |
| E U | 7,000 | 175 | 8,630 | 220 |
| 여타국 | 6,100 | 125 | 3,860 | 110 |

주 : 금액은 2002년말 누계, 증가율은 '94~'02년중 증가율

— 특히 지난 10년간 다른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3국 경제 어려움의 요인을 NAFTA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크다고 주장

〈「NAFTA 실패」에 대한 반론의 국가별 근거〉

| | |
|-------------|---|
| 미 국 | — 제조업 고용감소를 NAFTA의 탓으로 돌리지만 1994~2000년 사이에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20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됨 |
| 캐 나 다 | — NAFTA가 캐나다의 유럽식 사회복지제도를 위태롭게 할 것으로 우려했는데 실제로 캐나다의 공공부문 지출이 1990년대 들어 감소 ○ 이는 稅收가 감소한 데 따른 것이 아니라 공공차입이 GDP의 8%에 달하여 이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NAFTA와는 무관 |
| | ① NAFTA 때문에 Tequila 위기 극복 |
| | — NAFTA 출범후 NAFTA와 무관한 경제적 충격('94~'95년 Tequila위기*)으로 자본유출, 폐소화 폭락, 은행부실 등 금융시스템 붕괴 경험 * 테킬라(tequila)는 멕시코 산 독주의 이름으로 멕시코 외환위기 당시 브라질, 아르헨티나 등 주변국들이 테킬라에 취한 듯 덩달아 위기를 겪은 데서 유래하였으며 '인접효과' '전염효과'를 의미 |
| | — 멕시코는 '82년과 '86년의 금융위기 때보다 Tequila 위기를 신속히 극복했는데, 이는 NAFTA 파트너였던 미국의 강력한 지원 덕분임 |
| | ② 무역 및 투자 증가 |
| 멕시코 | — NAFTA 출범후 멕시코의 전체수출 및 대미수출이 크게 증가 ○ '93~'02년중 연평균 수출증가율 : 전체 13.4%, 對美 14.3% |
| 코 | — 2002년중 멕시코는 세계 12위 교역국(3,463억달러)으로 성장하였으며 특히 NAFTA 가입후 대미무역은 적자에서 흑자로 반전 ○ 대미수지 : 81억달러 적자('93년) → 258억달러 흑자('02년) |
| | — NAFTA가 외국투자자들을 안심시켜 FDI가 크게 증가 |
| | ③ 일부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인정 |
| | — 멕시코의 고용이 크게 늘지 않아 캐나다·미국에 대한 불법이민 증가 — 보조금을 지원받는 미국산 옥수수로 인해 멕시코 농민에 피해 발생 |
| | ④ 그러나 중국의 WTO 가입으로 멕시코의 강점이 반감 |
| | — NAFTA 보다 멕시코 내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 |

News 1

중국 무역, 가공무역이 선도(중국경제망, 1/19)

-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가공무역은 전체 무역보다 3배나 높은 신장세를 유지
 - 지난 1979년부터 2003년까지 중국의 전체무역 신장률은 연평균 12%를 기록한데 비해, 가공무역은 26.9%나 신장
 - 2003년 가공무역 총액은 4,048억 달러로 전체 무역의 48%를 차지, 총 수출대비 가공무역 수출 비중은 55%(2,419억 달러)를 기록
- 가공무역 중 70%이상이 진료가공(進料加工, 기업이 자기명의로 유환으로 원자재를 수입하여 가공한 후 수출)이 차지

News 2

일본, 2004년도 실질성장률 1.8% 목표 설정(日經, 1/20)

- 일본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2004년도 경제성장률 목표를 실질 1.8%, 명목 0.5%로 결정하였음. 설비투자가 경제를 견인하고 外需도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, 공공투자는 실질 -11.4%(명목 -12.2%)로 대폭 감소할 전망

News 3

IT전략 일원화 위해 정보통신부 창설 검토(日經, 1/17)

- 고이즈미 수상은 16일의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2007년 4월로 예정된 우편사업의 민영화에 맞추어 정보기술(IT)관련 행정의 일원화를 담당하는 정보통신부 창설을 검토토록 지시
 - 총무성의 정보통신 부문과 경제산업성 담당부서 등의 통합을 축으로 검토할 예정이며, 종적(縱的)으로 나누어진 행정의 폐단을 제거하여 IT산업의 성장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촉진한다는 목표

News 1

미국의 FTA 추진 동향 (WMRC Daily Analysis, 1/14)

- 미국은 1월 14일 도미니카 공화국과 자유무역협정(FTA) 협상을 개시하였음
 - 도미니카 공화국과의 FTA는 미국이 2003년 12월 중미 4개국(온두라스, 과테말라, 엘살바도르, 니카라과)과 체결한 CAFTA (US-Central American FTA)에 통합시킬 계획임
- 미국은 1월 26-29일간 바레인과 첫 FTA 협상을 개최할 계획임
 - 미 상무성 부차관인 William Lash는 바레인과의 FTA 협상은 2004년 중반까지 타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
- 모로코의 Driss Jettou 수상은 늦어도 2월 초까지 미국과의 FTA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
 - 2003년 말 타결을 목표로 했던 양국간 FTA는 농업시장 개방 문제로 지연되고 있음

News 2

태국-인도 FTA 발효 이후 무역량 두 배 증가 예상
(Web Daily News, 1/16)

- 태국의 하원 상업위원회 Rewat Sirinukul 의장은 2004년 3월 1일부터 태국-인도 FTA가 발효될 경우 양국간 교역량이 현재 12억 달러에서 30억 달러로 증가할 것이라고 언급
 - 양국간 FTA가 발효되는 첫 해에는 83개의 조기관세철폐 품목에 대한 관세가 50% 감소되고 2005년에는 완전 철폐됨